

남한강변 나옹화상 사자후 들리고...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신록사 다층전탑. (보물 제226호).

나의 나무가 자비로운 미소를 띤 부처님으로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한 것일까? 목각 부처님 탄생에 대한 호기심을 가득 품고 부처가 되고 싶은 나무를 만나고자 불교 문화체험기행단은 13일 가을이 부르익어 가는 논이 황금물결 사이를 달려 여주로 향했다.

안개 속에서 언뜻언뜻 보이는 산자락이 신비한 기운을 더할 즈음 고달사지 발굴현장에 도착했다.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 소속 발굴팀이 주머니삼으로 한창 발굴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고달사의 기존 절터는 대부분 흙 속에 잠겨 있다. 파헤쳐진 흙더미 사이로 드러나는 옛절에 남아있는 유물들의 규모도 섬세함은 고달사가 얼마나 대규모 사찰이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잡풀이 무성한

불교문화 체험기행

신록사·목아박물관·고달사지

가운데 군데군데 발굴을 위한 굴이 쳐있고 흙더미가 쌓여있는 사지에는 세월이 그만쯤의 무게를 자랑하며 짐계 드리워져 있다. 구분만 학예연구관(여주군청 향토사료관)의 설명을 받아 적으며 고달사지 곳곳을 둘러보는 기행단의 표정은 환희에 가득 차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고달사지 부도와 해진탑 귀부 앞에서 그 거대함과 웅장함에 숨을 멈추기도 했다.

고달사지에서 내려와 남한강을 따라 달리다 만나는 고할이 통일신라 말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는 신록사.

"신록사는 이 지역에 나타난 용마를

신록사에는 보물 225호 다층석탑, 226호 다층전탑, 228호 보제존자 석종부도, 229호 보제존자 석종비, 230호 대장각기비, 231호 석등 등이 아직도 그 모습을 보전하며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충전탑 너머 위치한 나옹선사의 다 입적 대비터는 남한강이 굽어보이는 곳으로 탑과 감월헌이라는 정자가 남아있어 지나는 이들의 한자락 심터가 되어주고 있다. 신록사에는 8백년 묵은 향나무와 은행나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짙을 지키고 있어 경내에 향기를 더한다.

신록사에서 정실공양을 한 기행단은

신록사 다층전탑 무늬 이색적 고달사지 부도·탑등 보물 즐비 목아박물관 유물 6천점 전시

어느 스님의 신력으로 재압했다 해서 귀신 신(神) 재압할 목(物)자를 써서 지은 이름이네요. 특징을 잘지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찰이라는 것과 조사당에 지공·나옹·무학 세 대사의 영정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문화유산 등을 통해 마음을 닦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항상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신록사 주지 세영스님의 법문이 가을햇살처럼 잔잔히 가슴에 와 닿았다.

고려말 최고의 산승으로 알려진 나옹화상이 입적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20분 거리의 목아박물관을 향해 발걸음을 서둘렀다.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불상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많은 손을 필요로 한다. 좋은 나무를 고르고 골라 말리고, 정성껏 조각한 다음 전통염료로 색을 입힌다. 그리고 계공을 하거나 금물로 무늬를 입히는 작업을 거쳐 온경처럼 아름다운 문패가 그려지면 불상이 완성된다. 완성된 불상은 점안식을 거쳐야 비로소 신앙의 대상이자 존엄의 상징인 부처님으로 인정된다. 이 과정을 고스란히 담은 영화 '부처가 되고 싶은 나무'를 관람한 후 신라부터 현대까지의 각 불상 등 6천여점의 유물이 소장돼 있는 목아박물관을 둘러보았다.

"불교조각이라는 분야가 처음 인정을 받은 것이 10여년 전입니다. 그때 전 3년여에 걸쳐 1천년 묵은 나무를 일본에서 수입해와 법상을 조각했습니다. 불상이 없었더라면 법상을 조각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각이란 나무를 쪼아 부처님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생선을 반 쪼이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쫓아내는 양내가 나듯 나무도 정작이 될 수도 있고 장엄한 부처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교조각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아끼지 않은 박찬



신록사는 보제존자 나옹스님이 입적한 사찰이다. 나옹스님 부도앞 석등에 관해 구분만 학예연구관의 설명을 듣는 모습들이 진지하다.



신록사내에 입적한 고려시대 고승 보제존자 나옹화상의 부도(보물 제228호). 팔각원당형이 아닌 리미엄 형식이 독특하다.

수관장(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은 이어 모시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십전(十殿)에 대한 설명도 들려준다. 제1전은 석가모니를 모신 대웅전, 제2전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극락보전·아미타전·무량수전, 제3전은 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신 비로전·대적광전, 제4전은 미륵부처님을 모신 미륵전·유화전, 제5전은 약사여래를 모신 약사전, 제6전은 관세음보살을 모신 관음전, 제7전은 부처님입대를 담은 팔상전·팔상성전, 제8전은 대장경을 모신 대장전, 제9전은 명부전·지장전, 제10전은 오백나한을 모신 동진전·나한전이다.

전문가들의 안내를 받아 불상과 전각, 부도, 탑 등을 현장에서 직접 보며 공부한 때문일까. 귀경하는 기행단의 얼굴 일곱에는 뿌듯함이 가득했다.

글=김지연 기자(jygang@buddhan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nia.com)

고달사지는 우리나라 현존 최대부도 비지정 문화재 다수 방치 발굴·복원 10개년 계획

고려시대 5대 사찰의 하나라고 전하는 고달사. 현재 남아있는 사지에는 국보급 석조문화재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대단한 역사를 가진 불적일에도 불구하고 사찰의 영역은 물론 기본 가람배치에 대한 학술적 사료도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비지정 실물들은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어 학계의 안타까움을 사왔다. 이에 고달사지의 발굴복원을 계획한 경기도 박물관은 내년까지 정밀발굴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 고달사지에 대한 중장기종합발굴조사계획(10개년)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신라 경덕왕 23년(764)에 창건했다고 전하는 고달사는 국가가 관장하는 사찰로 왕실의 비호를 받았던 곳이다. 신라시대 이래 회양암, 도봉암과 함께 삼현의 하나로 인정받던 대사찰이었으나 고려말엽에 폐사되었다.

현재 사지에는 국보 4호 고달사지 부도를 비롯하여, 보물 6호 원종대사

해진탑 귀부 및 이수, 보물 7호 원종대사 해진탑, 보물 8호 고달사지 석불좌 등이 남아있다. 특히 고달사지 부도는 팔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기단석도 사각이 아닌 팔각으로 조성되어 있어 고려시대를 대표할 만한 부도이다. 이러한 형식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특이한 양식이다. 이러한 지정문화재 외에도 또 다른 귀부와 초석, 계단 등이 무수한 역사를 품고 있음이 여러 사지에 나타나고 있어 조직적인 발굴 및 복원이 필요한 곳이다. 고달사지 부도는 1대 주자인 원강대사의 부도라는 논란이 있다. 이는 원종대사 부도의 용머리가 고달사지 부도를 향해 쳐다보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 원종대사가 사조인 원강대사에게 존경과 그리움을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달사 원종대사 해진탑이 귀부 및 이수, 높이 2m, 975년 조성. 보물 제6호.



목아박물관 박찬수관장은 불상의 탄생과정과 우리나라 불상조각의 특성에 대해 관련 영화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목아박물관 앞을 목조 불상, 부처가 되고 싶은 나무는 이제 나무가 아니다.

성·동·석·재·불·사·공·예·사

귀의 삼보하움고, 20여년 동안 쌓은 섬세한 조각기술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작품조성으로 보답하고자 하오니 고승대덕 큰스님 및 불자 여러 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대표 김성표 합장

성동석재불사공예사 전 화 : 0357) 531-8736 호 출 : 012) 321-6044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성동 5리 822-2 팩 스 : 0357) 531-5549 핸드폰 : 011) 284-510

氣 치료 능력 전수

수년 혹은 수십년씩 기공 수련을 해야 가능했던 氣 치료 능력, 氣 응용 능력이 비법의 재발견과 그 과학화에 힘 입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바뀌었다. 레이키(REIKI·氣功)요법이 그 비법이다. 레이키 요법은 그 비법성으로 인해 전승이 끊겼던 티베트 밀교의 한 비법이 20세기 초엽에 일본의 수행자 우스이 미키오(1865-1936)에 의해 재발견된 후 미국으로 전승되어 미국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그 방법이 과학화, 표준화, 체계화, 간략화되면서 1980년대부터 영공 등의 의보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세계화되고 있는 氣 치료법, 氣 응용법이다.

국인 대다수가 건강 불안과 생활불안을 안고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욱 간절하고 더욱 효과적인 건강법과 생활승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것이 레이키 요법이다. 이 레이키 요법은 자각되는 레이키 마스터에게서 전수만 받으면 누구나 단시간내에 氣 치료능력, 氣 응용능력이 될 수 있는 비법 중의 비법이다.

○레이키 요법의 전수 절차
레이키요법의 전수는 모두 3단계로 이루어지며, 총소요일수는 5-10일 정도이다. 필요하면 이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도 있다.

○레이키 요법의 전수 대상자(4세-83세)
① 스님을 비롯한 성직자와 의사들의 의료적 종사자
② 남에게 좋은 일하여 살기를 원하는 분
③ 새로운 직업(레이키 요법)을 가지려는 분
④ 만성병을 스스로 치료하고 다스리려는 분
⑤ 만성병을 앓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
⑥ 가정과 사회를 평화롭고 온세롭게 하려는 분
⑦ 자기와 우주, 이 세상과 저 세상, 영재계와 잠재계가 한 덩어리임을 깨달으려는 분

○레이키 요법의 응용
① 음식물, 물, 약, 씨앗, 사료 등에 氣를 넣는데 쓰인다.
② 감정, 마음, 카르마(업),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행동 장애 등을 개선하고 영성을 개발하는 데 쓰인다.
③ 미용술과 단식효과를 올리는 데 쓰인다.
④ 원격치료, 동식물의 치료, 환경을 정화하는 데 쓰인다.
⑤ 소망성취, 미래에 일어날 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데 쓰인다. 기타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레이키마스터 반익 저술가 박익준 (朴熈俊)
서울시 중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션 B/D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회 (02)720-5682, 725-2311

건강의 신비! 옥

태고에서 무덤까지 옥을 달고 산 한국인들 '보석' 인가? '영험한 치료제' 인가!

○ 처녀가 옥을 껴보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살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판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최춘한다. (王宮寶術·에서)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천취를 기른 결과 솜늬 쥐는 정자가 40% 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특히 심장질환, 두통, 불면증환자의 그 절반정도가 완치 효과를 보았고 그의 나머지는 37%~84.8%의 치유효과를 보였다. (북경중의병원 임상 보고서)

제품 옥목걸이, 장신구, 침대침구류, 기초화장품, 옥도자기 등

• 옥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眞玉)은 이제 전설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사된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명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춘천옥, 자연옥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링메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라야 승배가 걸립니다.

毛山家 (02)777-0105 (북옥)